



호주관광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인들이 호주 관광을 통해 지출하게 될 여행 경비는 60억 호주달러(7조 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_이경욱 특파원

호주, 중국 특수에 살 맛 난다

천연자원 싹쓸이로 제2의 광산 붐
중국 관광객·유학생도 경제 활력소

“중국이 호주를 먹여 살린다?”

호주가 중국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자원 블랙홀인 중국이 사들이는 석탄, 철광석,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광물자원은 호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또 세계 제1의 인구대국인 중국의 관광객이 대거 호주로 밀려들면서 빈 사상태에 놓인 호주 관광업계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아울러 호주의 주요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정상적

인 학교 운영이 어려울 정도다. 호주 각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하고 있다.

호주 관광명소엔 중국인 '북적'

호주를 대표하는 도시 시드니에는 중국인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 등 관광 명소에는 노상 중국인 단체관광객들로 붐빈다. 중국어 안내판이 붙은 관광버



스는 물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중국말로 시끄럽기까지 하다. 시드니 시내 유명 쇼핑센터와 백화점, 중국 상점 밀집 지역에도 싸늘이 쇼핑을 즐기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넘쳐난다. 호주는 요즘 기온이 30℃를 오르내리는 여름이다. 남반구에 위치해 중국과는 정반대인 계절적 이점이 중국 관광객을 호주로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가 중국인의 피한(避寒) 여행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호주관광청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은 2010년부터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호주에서 지출한 관광비용이 처음으로 30억 호주달러(약 3조 4천500억 원)를 넘어서었다. 중국인 관광객은 명품 선호 경향

이 두드러져 1인당 지출액이 영국인 관광객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 등지의 다이아몬드, 명품 시계, 진주 상점들은 중국인 관광객의 '통큰' 씀씀이 덕에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귀금속판매점 줄리언 파렌-프라이스는 "최근 2년 사이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며 "이들은 여행도 여행이지만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품을 구입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비자카드와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여행 의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향후 2년간 호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해 중국인의 호주 행렬이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앤드루 맥보이 호주관광청장은 "호주가 중국인들에게 최고의 해외여행지로 떠올랐다"고 말하고 "1999년 양국이 해외여행허가지역지위(ADS) 부여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보이 청장은 "호주에 대한 중국인 관광

객의 선호도 향상에 맞춰 양국 항공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광시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호주관광연구소(TRA)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는 2020년 중국인들이 호주 관광에 나서 지출할 여행경비는 60억 호주달러(약 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31억 호주달러의 2배다. 또 8년 후에는 관광객 수에서도 중국이 영국을 따돌릴 것으로 예상됐다.

호주 관광업계 역시 중국인 관광객의 등장이 국내 관광 수요 감소에 따른 공백을 메워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뜬 분위기다. 호주 관광업계는 서호주와 퀸즐랜드주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제2의 광산 개발 붐에 따른 호주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자국민이 국내 관광보다는 해외여행을 선호함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호주관광청 제프 디슨 이사장은 "중국인과

Australia

호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밀 듯이 밀려들면서 빈사 상태의 호주 관광업계를 회생시키고 있다. 아직은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 관광객에 비해 적지만 향후 10년 내에 최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세계의 굴뚝' 중국이 생산에 필요한 석탄과 철광석 등을 마구 사들이고 있고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까지 싹쓸이하면서 호주의 광산업계는 '제2의 광산 개발 붐'을 누리고 있다. EPA_연합뉴스

동남아시아인이 호주 광산업의 구원투수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유입될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국 특수로 '제2의 광산 붐'

호주가 누리는 중국 특수의 최대 수혜 업종은 단연 광산업이다. 호주 광산업계는 세계 금융 불안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호주산 천연자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의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광산업계는 지난해 3분기(7~9월) 국제상품가격 급등과 호주달러화의 초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 수준인 260억 호주달러(약 30조 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 기간 철광석, 석탄, LNG 등 주요 천연자원의 국제상품가격은 1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광산회사 BHP빌리턴의 경우

2010회계연도에 236억 호주달러(약 27조 원)의 사상 최대 순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6%나 급증한 것으로 호주 4대 시중은행의 순익을 모두 합한 것과 맞먹을 정도다.

광산업계를 대변하는 호주광물협의회(MCA)는 "천연자원 가격이 세계 경기 둔화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광산 붐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의 굴뚝' 중국이 산업생산에 필요한 석탄과 철광석 등을 마구 사들이고 있고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호주산 LNG를 빨아들이면서 호주 광산업계가 '제2의 광산 개발 붐'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석탄이나 철광석 등 국제상품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어 광산 붐이 식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기는 하다. 지난해 4분기(10~12월)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가격은 25%나 급락했다. 투자자들이 올해에는 세계적으로 천연자원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시장분석가는 국제상품가격이 지난



호주의 중국인 관광객은 그동안 한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관광객들은 호주의 자연환경과 태양, 해변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PA_ 연합뉴스



'절약형' 관광을 즐기는 영국인 등과 달리 중국인 관광객들은 명품 가방 등 고가품 구입도 주저하지 않아 1인당 소비지출 규모가 영국 관광객의 2배를 넘는다. 호주의 대형 쇼핑센터. 사진 이경욱 특파원

해 말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벤 자먼 JP모건 책임연구원은 “호주의 교역조건이 올해 8~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국제상품가격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도 호주 광산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최대 고객인 중국의 경기 상황 변화는 곧 호주산 천연자원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 광산업계는 국제상품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을 줄여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중국이나 세계 경기의 둔화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자크 나세르 BHP 빌리턴 회장은 “유럽과 미국발(發) 금융 불안이 단기적 측면에서 중국의 호주산 천연자원 구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중국 유학생이 호주대학 버팀목

호주에는 지난해 현재 62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 중 39%가 대학생이다.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 출신이다. 인도 출신 유학생이 급증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인 유학생은 여전히 호주 대학들의 최고 고객이다.

맥쿼리대 등 유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호주연방정부가 이민법을 강화하고 나선 데다 호주달러화의 초강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캐나다 등지의 학교를 택하려는 조짐이 일부 엿보이기는 하나 중국인 유학생들은 여전히 호주의 교육산업에 기동뿌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출신 유학생이 일제히 발길을 돌린다면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대학들이 휘청거릴 것이라는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이경욱 시드니 특파원 kyunglee@yna.co.kr